논어 11편 선진 11장 · 원문·풀이

# 季路問事鬼神。子曰：「未能事人，焉能事鬼？」曰：「敢問死？」曰：「未知生，焉知死？」

독음 · 계로문사귀신 자왈 미능사인 언능사귀 왈 감문사 왈 미지생 언지사

쉬운 풀이(요약) · 사람을 섬기는 일도 다하지 못했는데 귀신을 어찌 섬기며,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죽음을 어찌 알겠느냐고 했다.

AI가 원문을 대조해 작성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 해석이 갈리는 구절은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.

글자 뜻과 음(대표 훈음 · 문맥별 독음은 위 본문 참고)

季 끝 계 계 / 路 길 로 로 / 問 물을 문 문 / 事 일 사 사

鬼 귀신 귀 귀 / 神 천신 신 신 / 子 아들 자 / 曰 가로 왈

未 아닐 미 미 / 能 능할 능 능 / 人 사람 인 / 焉 어찌 언 언

敢 감히 감 감 / 死 죽을 사 사 / 知 알 지 / 生 날 생 생

저본: 위키문헌 論語 · 편별 고정 판본과 전체 교정 기록은 출처 페이지를 참고하세요.